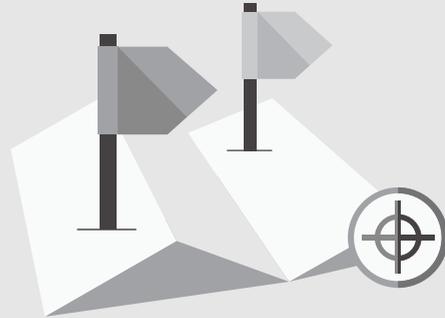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종서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변수정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장인수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김은정

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조성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선영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년 주기로 '가족과 출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를 개인 단위와 가족 단위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작용 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완료 표본은 9,999가구, 1만 4,538명 이었고, 배우자와 애인 및 파트너가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1%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1-070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를 중심으로'에 게재된 원고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¹⁾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Economic Resources: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Unmarried Adults

최선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50세 미만 성인(19~49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9~49세 성인의 약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경험과 시기,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 집을 떠나는 일은 특정한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이행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비혼인구의 특성별 부모 동거율을 보면, 남성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취업 중일 때 부모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문화적 지지 등이 비혼 성인의 부모 동거율(또는 주거 독립 여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의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에도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라면 기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들어가며

오늘날 개인의 생애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물론, 성인기

의 생활 형태도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있다. 노동시장 참여의 과업은 성인기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초혼 연

1) 이 글은 박종서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제9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령의 상승과 비혼인구의 급증, 출산을 감소가 보여 주듯이 결혼과 부모 됨이라는 성인의 전형적인 과업은 더 이상 보편적인 생애 경험의 항목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혼의 확산을 초래하는 거시적·미시적 원인에 대한 탐구와 별개로, 비혼의 성인기는 기혼의 성인기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²⁾ 이 글에서는 동거 형태와 세대 간 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최근 늘고 있는 우리나라 비혼인구의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결혼은 개인이 부모 집(부모의 보호와 통제)을 떠나 자기 가족을 형성하고 자립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결혼의 지연은 곧 자립의 지연, 부모의 보호와 통제 지속 등과 동일시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생애과정에서 개인에게 성인 지위를 제공하는 것이 가족 지위가 아닌 시장 지위(일자리와 소득)라고 한다면, 결혼의 지연과 비혼의 확산을 막연하게 비자립적 상태의 지속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혼의 상태를 가족 관계로부터 단절된 자유나 고립으로 이해하는 것도 단편적일 수 있다. 비혼 성인의 내적 다양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떻게 주거와 생활 면에서 자립성을 획득하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글은 예비적인 작업으로서 가족 관계, 특히 가족 내 세대 관계의 맥락에서 비혼 성인의 기혼 성인과 구분되는 세대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 사회에서 주거 자립(leaving home)은 졸업, 취업, 결혼(가족 구성), 부모 됨 등과 함께 전통적인 성인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의 지표로 간주되는 요소이다(Furstenberg, 2010). 그런데 노동시장 진입이나 가족 형성이 지연되면서 성인 이행이 늦춰지는 추세에서도 주거 자립 시점은 늦춰지거나 빨라지는 등 일관된 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거 자립을 고무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여 일관된 특성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Billari & Liefbroer, 2010). 취업의 지연, 결혼의 지연 등은 주거 독립 시점을 늦추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지역 간 이동이나 주거에 대한 가치관, 부모·자녀 관계 자체가 주거 독립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거 독립 시점을 앞당기도록 만들 수도 있다. 성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의 동거가 갖는 가치가 무엇인가도 확정적이지 않다. 부모와의 동거는 소득 공유(income pooling)를 통해 빈곤위험을 막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지만, 부모의 통제와 간섭의 지속으로 이해될 수 있다(로젠버그, 2014). 부모 입장에서조차 자녀와의 지속적인 동거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성인 자녀의 소득을 공유하여 빈곤을 방어할 수 있으며, 정서적·신체적 돌봄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글은 부모와의 동거가 제공하는 복지나 만족 등의 가치를 직접 다루지는 못하며, 개인의 특성별 부모 동거 여부를 통해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성인 남

2) 이 글에서 인구통계적 분석에서는 미혼, 사회적 집단이나 현상을 의미할 때에는 비혼을 사용하지만, 미혼과 비혼이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고 교환해서 사용한다.

녀가 자신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가장 기초적인 특성이다.

이 글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함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비동거 부모와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환 관계를 살펴본다. 세대 간 이전의 대상은 경제적 자원 외에도 시간적 자원이나 정서적 자원 등 다양하다. 그중 경제적 자원은 '주거 자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자립'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즉 세대 간 자원 이전 실태는 동거 형태(living arrangement)를 보완하여 세대 간 관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 두 측면을 함께 관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 조사된 '가족과 출산 조사'의 전체 응답자인 19~4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부모 동거 및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파악한다. 우선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비혼자의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여 비혼인구 증가가 가족 관계, 특히 세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주거 독립 경험

가. 부모와의 동거 여부

〈표 1〉은 부모가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현재 부모와의 동거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³⁾ 거주

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 동거 형태를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만 19~49세 성인 남녀 중 29.9%는 부모와 동거하고, 70.1%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양친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면,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가 21.7%, 어머니와의 동거는 6.6%, 아버지와의 동거는 1.6%를 차지한다.

응답자의 특성별 부모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농촌에 비해 근소하게 부모와의 동거율이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주지역 간 차이보다 뚜렷한데, 남성의 비동거율이 66.4%, 여성의 비동거율이 74.0%로 남성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45~49세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동거율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가장 연령이 낮은 19~24세의 부모 동거율은 75.5%에 이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거율이 하락하여 40대 연령 집단에서는 동거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난다. 특히 19~24세, 25~29세, 30~34세 사이의 부모 동거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부터 30대 초반 사이가 주된 주거 독립 시점임을 보여 준다.⁴⁾

마지막으로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미혼의 비동거율은 35.9%에 불과한 데 반해, 기혼의 부모 비동거율은 96.8%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

3) 부모 모두 부재한 경우는 4.2%를 차지한다(박중서 외, 2021, p. 319).

4) 이 글의 초점은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사느냐 아니냐이지만, 부모와의 동거에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만 함께 사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30대 후반 이후 부모와의 동거에서는 양친과의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 특히 모

표 1.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 구분 | 부모와 동거 | 모와 동거 | 부와 동거 | 비동거 | 전체 | |
|--------|--------|-------|-------|------|--------|-------|
| 전체 | 21.7 | 6.6 | 1.6 | 70.1 | 13,554 | 100.0 |
| 지역 | | | | | | |
| 동부 | 21.3 | 6.6 | 1.6 | 70.5 | 11,271 | 100.0 |
| 읍면부 | 23.5 | 6.2 | 1.9 | 68.4 | 2,283 | 100.0 |
| 성별 | | | | | | |
| 남자 | 23.8 | 7.7 | 2.1 | 66.4 | 6,872 | 100.0 |
| 여자 | 19.4 | 5.4 | 1.1 | 74.0 | 6,682 | 100.0 |
| 연령 | | | | | | |
| 19~24세 | 59.7 | 12.1 | 3.7 | 24.4 | 2,420 | 100.0 |
| 25~29세 | 37.3 | 8.9 | 2.3 | 51.5 | 2,293 | 100.0 |
| 30~34세 | 15.2 | 5.1 | 1.7 | 78.0 | 2,047 | 100.0 |
| 35~39세 | 6.4 | 3.9 | 0.3 | 89.4 | 2,309 | 100.0 |
| 40~44세 | 4.4 | 3.9 | 0.5 | 91.3 | 2,429 | 100.0 |
| 45~49세 | 3.4 | 5.2 | 1.2 | 90.2 | 2,056 | 100.0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47.9 | 12.8 | 3.4 | 35.9 | 5,938 | 100.0 |
| 기혼 | 1.2 | 1.7 | 0.2 | 96.8 | 7,616 | 100.0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 | 16.1 | 5.9 | 1.5 | 76.5 | 9,272 | 100.0 |
| 비취업 | 33.7 | 8.0 | 1.9 | 56.4 | 4,282 | 100.0 |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317의 <표 9-2> 일부.

에 따른 부모 비동거율의 이러한 차이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 집을 떠나는 중요한 계기가 결혼일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거주지역이나 성별, 연령 집단에 따른 부모 동거율 차이도 혼인한 사람의 비율 차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집단의 부모 비동거 비율도 35.9%를 차지하

로, 결혼 이외의 주거 독립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혼인 이외의 요인들이 부모 동거 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표 2>에서는 미혼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성, 연령 집단, 취업 여부, 교육 수준에 따른 부모 동거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미혼 남성의 60.9%가 부모와 함께 사는 데 반해 미혼 여성은 그보다

와의 동거 비율이 높다. 즉 30대 후반 이후에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30대 후반 비동거율 89.4%), 혼자가 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있을 경우에는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는 단순히 부모에 대한 의존 상태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2. 미혼자의 성·연령별 취업 여부 및 교육 수준에 따른 부모 동거 비율

(단위: %)

| | 미혼 남성 | | | | | 미혼 여성 | | | | | 미혼 전체 |
|--------|-------|-------|------|--------|--------|-------|-------|------|--------|--------|-------|
| | 전체 | 취업 여부 | | 교육 수준 | | 전체 | 취업 여부 | | 교육 수준 | | |
| | | 비취업 | 취업 | 4년제 미만 | 4년제 이상 | | 비취업 | 취업 | 4년제 미만 | 4년제 이상 | |
| 19~24세 | 76.0 | 81.9 | 64.6 | 76.6 | 64.3 | 79.6 | 84.1 | 73.8 | 81.4 | 70.6 | 77.7 |
| 25~29세 | 59.0 | 74.2 | 51.7 | 58.3 | 59.7 | 64.2 | 74.5 | 60.7 | 64.9 | 63.7 | 61.1 |
| 30~34세 | 46.4 | 71.2 | 40.0 | 52.9 | 41.4 | 58.4 | 76.1 | 54.1 | 60.0 | 57.4 | 50.3 |
| 35~39세 | 49.7 | 73.0 | 46.5 | 56.2 | 43.1 | 45.3 | 57.0 | 43.2 | 54.0 | 38.8 | 48.5 |
| 40~44세 | 45.0 | 71.4 | 41.2 | 52.5 | 32.7 | 59.6 | 64.1 | 57.5 | 54.6 | 67.3 | 48.4 |
| 45~49세 | 52.9 | 59.1 | 50.7 | 57.6 | 42.5 | 40.7 | 48.1 | 38.0 | 44.1 | 37.5 | 49.3 |
| 전체 | 60.9 | 78.0 | 50.1 | 66.3 | 49.9 | 69.0 | 80.0 | 62.0 | 73.9 | 61.3 | 64.1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8.1%포인트 높은 69.0%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5~49세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 동거 비율이 낮아졌으며, 여성은 30대 후반까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지만 40대 초반의 부모 동거 비율이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의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취업은 지역 간 이동을 유발하고 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주거 독립의 자원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부모 동거 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연령 집단별 차이도 나타났다. 취업한 미혼 남성 중 부모 동거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 집단은 가장 연령이 높은 40대 후반이 아니라 30대 초반(40.0%)이었다. 취업한 미혼 여성의 연령별 패턴도 일관되지는 않는데, 45~49세의 부모 동거 비율이 38.0%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으로 낮은 연령 집단은 30대 후반(43.2%)이었다.

다음으로 교육 수준에 따른 부모 동거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4년제 대졸 미만인 경우의 부모 동거 비율이 그 이상의 학력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낮은 계층 지위가 미혼자들이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령별 부모 동거율 패턴이 미혼자와 기혼자를 모두 포함한 <표 1>의 패턴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연령별 미혼인구의 속성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평균적으로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비혼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위치(젠더, 계층)에 따른 결혼율의 차이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연령대 미혼인구 집단의 특성은 저연령대 미혼인구 집단의 특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연령 집단별 미혼인구의 속성 차이가 부모 동거 비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주거 독립 경험 유무와 독립한 나이

다음으로는 회고적 정보에 기초하여 응답자들의 주거 독립 경험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 주거 독립은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군 입대 제외)'으로 정의하였다. 주거 독립 경험 유무, 독립 시점, 독립한 이유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먼저, <표 3>을 보면, 현재 19~49세 성인 남녀의 21.7%는 독립한 경험이 없었고,

78.3%는 독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거 독립 시점의 과거 나이는 20세 미만인 18.5%, 20~24세가 27.6%, 25~29세가 20.4%, 30~34세가 9.2%, 35세 이상이 2.6%로 나타났다. 독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독립한 나이의 중간값은 남녀 모두 23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남성이 23.9세, 여성이 23.5세로 나타났다.⁵⁾

표 3.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험 유무 및 독립한 나이

(단위: %, 명)

| 구분 | 독립한 적 없음 | 독립한 적 있음 | 독립한 시기(과거 나이) | | | | | 전체 | |
|--------|----------|----------|---------------|--------|--------|--------|--------|--------|-------|
| | | | 20세 미만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세 이상 | | |
| 전체 | 21.7 | 78.3 | 18.5 | 27.6 | 20.4 | 9.2 | 2.6 | 14,094 | 100.0 |
| 지역 | | | | | | | | | |
| 동부 | 22.3 | 77.7 | 17.8 | 26.4 | 21.0 | 9.7 | 2.8 | 11,693 | 100.0 |
| 읍면부 | 18.6 | 81.4 | 21.6 | 33.6 | 17.7 | 6.6 | 1.8 | 2,400 | 100.0 |
| 성별 | | | | | | | | | |
| 남자 | 24.0 | 76.0 | 18.4 | 25.8 | 18.5 | 10.1 | 3.3 | 7,088 | 100.0 |
| 여자 | 19.3 | 80.7 | 18.6 | 29.5 | 22.4 | 8.3 | 2.0 | 7,006 | 100.0 |
| 연령 | | | | | | | | | |
| 19~24세 | 66.8 | 33.2 | 15.5 | 17.8 | 0.0 | 0.0 | 0.0 | 2,424 | 100.0 |
| 25~29세 | 33.6 | 66.4 | 20.8 | 31.6 | 14.1 | 0.0 | 0.0 | 2,314 | 100.0 |
| 30~34세 | 15.3 | 84.7 | 20.5 | 29.4 | 25.4 | 9.3 | 0.0 | 2,070 | 100.0 |
| 35~39세 | 5.9 | 94.1 | 19.0 | 26.8 | 29.0 | 17.4 | 2.0 | 2,354 | 100.0 |
| 40~44세 | 4.2 | 95.8 | 18.4 | 29.2 | 26.1 | 16.5 | 5.7 | 2,566 | 100.0 |
| 45~49세 | 4.0 | 96.0 | 17.2 | 31.4 | 28.5 | 11.3 | 7.5 | 2,366 | 100.0 |
| 혼인 상태 | | | | | | | | | |
| 미혼 | 48.9 | 51.1 | 16.9 | 23.8 | 7.0 | 2.2 | 1.2 | 6,028 | 100.0 |
| 기혼 | 1.4 | 98.6 | 19.6 | 30.4 | 30.5 | 14.4 | 3.7 | 8,066 | 100.0 |

주: 1) 여기에서 '독립'은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산 것을 의미함(군 입대 제외).

2) 부모가 없었던 사례는 제외하고 계산함.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324의 (표 9-7)의 일부.

5) 개인의 주거 이력은 이론적으로 부모 동거와 부모 비동거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 여부를 통해 주거 독립 경험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만 18세 이후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경험이 일시적이었는지, 지속적이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떨어져 산 적이 있는 사람의 78.2%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비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지속적 주거 독립) 나머지 21.8%는 다시 부모와 함께 산 것(일시적 주거 독립)으로 나타났다(박중서 외, 2021, pp. 331-332).

18세 이후 독립 경험 유무는 응답자의 현재 나이에 영향을 받는 정보이다. 현재 연령이 낮을수록 관찰 기간이 짧아서 주거 독립 사건이 관찰 기간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현재 19~24세의 66.8%와 25~29세의 33.6%가 18세 이후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30~34세는 15.3%, 35~39세는 5.9%만이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일단 주거 독립이라는 생애사건 경험이 완료된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독립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 35~39세 이후의 연령 집단은 대부분 독립한 경험이 있다. 그 중간 연령 집단인 40~44세 연령 집단을 통해 부모 집에서 독립 주거로의 이행을 완료한 코호트의 경험을 살펴보면, 주거 독립을 경험한 과거 연령은 20세 미만이 18.4%, 20~24세가 29.2%를 차지하여 24세까지 약 50%가 부모와 떨어져 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29세는 26.1%, 30~34세, 35세 이상에 독립한 경우도 각각 16.5%, 5.7%를 차지하여 30세 이후에 독립한 비율도 약 2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는 특정한 연령에 집중되기보다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해 있다.

다음 <표 4>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독립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결혼을 해서'(36.4%)였고, 그 외 학교(28.0%), 직장(20.9%) 등의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앞에서 40~44세 연령 집단을 통해 주거 독립 시점을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 집단의 주거 독립 이유를 살펴보면, 결혼을 해서(44.6%), 학교 때문에(21.5%), 직장 때문에(19.7%)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독립하고 싶어서(6.6%), 집안 사정이 있어서(4.1%)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혼, 진학, 취업이 부모의 집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게 되는 주된 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에 비해 학교나 직장 때문인 경우보다 결혼이나 독립 자체를 원해서 독립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하면서 주거 독립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은 결혼하기 전에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 집을 떠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된 후 부모와 함께 사는 동거 유형에 젠더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미혼의 주거 독립 사유는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서(45.9%),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28.5%), 독립하고 싶어서(14.3%)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에는 결혼해서(50.4%)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서(21.1%),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18.0%), 독립하고 싶어서(4.6%) 등이 독립 사유로 나타났다.

표 4. 부모로부터 독립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 1. 학교 | 2. 취업 | 3. 직장 | 4. 결혼 | 5. 독립 | 6. 집안 | 7. 기타 | 전체 | |
|--------|-------|-------|-------|-------|-------|-------|-------|--------|-------|
| 전체 | 28.0 | 2.8 | 20.9 | 36.4 | 7.3 | 3.9 | 0.7 | 11,037 | 100.0 |
| 지역 | | | | | | | | | |
| 동부 | 27.8 | 2.6 | 19.7 | 37.5 | 7.8 | 3.8 | 0.8 | 9,084 | 100.0 |
| 읍면부 | 29.2 | 3.6 | 26.5 | 31.2 | 5.0 | 4.0 | 0.4 | 1,953 | 100.0 |
| 성별 | | | | | | | | | |
| 남자 | 31.4 | 3.8 | 24.2 | 26.4 | 9.2 | 4.5 | 0.6 | 5,384 | 100.0 |
| 여자 | 24.8 | 1.9 | 17.9 | 45.9 | 5.5 | 3.3 | 0.8 | 5,653 | 100.0 |
| 연령 | | | | | | | | | |
| 19~24세 | 59.2 | 2.1 | 15.1 | 4.5 | 11.9 | 6.0 | 1.2 | 805 | 100.0 |
| 25~29세 | 41.4 | 3.5 | 23.8 | 14.9 | 9.7 | 5.8 | 0.9 | 1,536 | 100.0 |
| 30~34세 | 31.7 | 2.6 | 21.6 | 32.4 | 7.7 | 3.4 | 0.6 | 1,753 | 100.0 |
| 35~39세 | 24.7 | 2.5 | 19.4 | 42.6 | 6.7 | 3.2 | 0.9 | 2,215 | 100.0 |
| 40~44세 | 21.5 | 3.0 | 19.7 | 44.6 | 6.6 | 4.1 | 0.5 | 2,458 | 100.0 |
| 45~49세 | 15.4 | 2.8 | 23.4 | 50.3 | 5.2 | 2.5 | 0.5 | 2,270 | 100.0 |
| 혼인 상태 | | | | | | | | | |
| 미혼 | 45.9 | 3.7 | 28.5 | 0.0 | 14.3 | 6.7 | 1.0 | 3,082 | 100.0 |
| 기혼 | 21.1 | 2.4 | 18.0 | 50.4 | 4.6 | 2.8 | 0.6 | 7,955 | 100.0 |

주: 1) ①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서 ②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③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④ 결혼을 해서 ⑤ 독립하고 싶어서 ⑥ 집안 사정이 있어서 ⑦ 기타

2) 여기에서 '독립'은 만 18세 이후 부모로부터 6개월 이상 떨어져 산 것을 의미함(군 입대 제외).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326 (표 9-8).

다. 소결: 주거 독립과 결혼

결혼은 우리나라 성인이 부모에게서 주거 독립을 하는 주된 계기 중 하나로 나타났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결혼의 지연이나 비혼 증가가 부모와의 동거 기간을 늘리거나 동거 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결혼 이외에 학업, 취업, 독립 자체를 위해서 독립을 하는 경우도 결혼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독립의 사유 중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혼이면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사람의 비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 집을 떠나는 것이 규범인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이 글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결혼한 적 없는 19~49세 미혼자의 64.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혼 성인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동거율의 차이는 우리나라 비혼 성인의 높은 부모동거율에 경제적 제약이나 사회문화적 제약에 따른 비자발적인 동거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미혼 남성과 여성은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자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 다음에서는 우선 19~49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살펴보고, 부모에게서 주거 독립을 한 미혼자에 한정하여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성인 자녀와 비동거 부모의 세대 간 자원 이전

가. 성인 자녀와 비동거 부모의 세대 간 자원 이전

다음은 19~49세 성인 남녀 중 비동거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5>는 19~49세 성인 남녀가 지난 1년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을 살펴본 것이다.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을 모두 합산하여 월간 금액으로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의 13.3%로 나타났다. 나머지 86.7%는 크고 작은 규모의 현금 또는 현물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 규모는 월간 20만 원 미만(연간 24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혀 지원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지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여성보다 더 큰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표 5. 지난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지원 금액(월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 없음 | 10만 원 미만 | 10만~20만 원 미만 | 20만~30만 원 미만 | 30만~50만 원 미만 | 50만~70만 원 미만 | 70만 원 이상 | 전체 |
|--------|------|----------|--------------|--------------|--------------|--------------|----------|---------------|
| 전체 | 13.3 | 42.8 | 24.1 | 8.5 | 7.0 | 2.4 | 2.1 | 9,555 100.0 |
| 성별 | | | | | | | | |
| 남자 | 15.7 | 39.9 | 23.2 | 7.8 | 7.7 | 2.9 | 2.8 | 4,592 100.0 |
| 여자 | 11.0 | 45.4 | 24.8 | 9.1 | 6.3 | 1.8 | 1.5 | 4,963 100.0 |
| 연령 | | | | | | | | |
| 19~24세 | 55.2 | 33.8 | 4.4 | 2.5 | 2.9 | 0.7 | 0.4 | 618 100.0 |
| 25~29세 | 24.2 | 43.3 | 17.4 | 6.2 | 6.2 | 1.7 | 1.1 | 1,192 100.0 |
| 30~34세 | 12.4 | 47.4 | 23.6 | 7.5 | 5.4 | 2.6 | 1.1 | 1,597 100.0 |
| 35~39세 | 7.7 | 46.7 | 26.8 | 7.6 | 6.2 | 2.6 | 2.4 | 2,068 100.0 |
| 40~44세 | 6.5 | 42.1 | 28.2 | 9.2 | 8.3 | 2.7 | 3.0 | 2,222 100.0 |
| 45~49세 | 7.3 | 37.9 | 27.3 | 12.7 | 9.4 | 2.6 | 2.8 | 1,858 100.0 |
| 혼인 상태 | | | | | | | | |
| 미혼 | 30.8 | 34.2 | 15.5 | 6.8 | 7.1 | 2.9 | 2.8 | 2,182 100.0 |
| 기혼 | 8.1 | 45.3 | 26.6 | 9.0 | 7.0 | 2.2 | 1.9 | 7,373 100.0 |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346의 <표 9-18> 일부.

다. 연령 집단별로 보면, 19~24세부터 40~44세 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다소 증가한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율이 가장 높은 40~44세도 월간 10만 원 미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42.1%, 10만~20만 원 미만을 지원한 경우가 28.2%를 차지하여, 성인 자녀에서 부모로의 경제적 이전은 소액에 치우쳐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혼자는 비동거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30.8%로 기혼자의 8.1%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미혼자는 기혼자와 비교하여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6〉은 반대로 지난 1년간 성인 자녀가 비

동거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을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을 모두 합하여 경험률과 지원 규모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은 전체의 35.3%로 나타났다. 이는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 13.3%(표 5)보다 22.0%포인트 높은 것이다. 즉 19~49세의 성인 남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험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규모를 살펴보면, 10만 원 미만이 44.5%를 차지하고, 10만~20만 원 미만이 10.2%, 20만~30만 원 미만이 3.1%로 나타났다. 3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경우는 전체의

표 6. 지난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 유무와 수혜 금액(월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 없음 | 10만 원 미만 | 10만~20만 원 미만 | 20만~30만 원 미만 | 30만~50만 원 미만 | 50만~70만 원 미만 | 70만 원 이상 | 전체 |
|--------|------|----------|--------------|--------------|--------------|--------------|----------|-------------|
| 전체 | 35.3 | 44.5 | 10.2 | 3.1 | 2.1 | 1.7 | 3.2 | 9,555 100.0 |
| 성별 | | | | | | | | |
| 남자 | 40.0 | 42.2 | 7.6 | 2.6 | 2.0 | 1.8 | 3.8 | 4,592 100.0 |
| 여자 | 30.9 | 46.7 | 12.5 | 3.6 | 2.2 | 1.6 | 2.6 | 4,963 100.0 |
| 연령 | | | | | | | | |
| 19~24세 | 30.6 | 20.4 | 3.2 | 2.6 | 5.4 | 8.9 | 29.0 | 618 100.0 |
| 25~29세 | 38.7 | 39.3 | 8.7 | 3.0 | 3.2 | 3.3 | 3.9 | 1,192 100.0 |
| 30~34세 | 32.7 | 45.6 | 11.4 | 4.0 | 2.4 | 1.6 | 2.2 | 1,597 100.0 |
| 35~39세 | 29.7 | 51.2 | 12.1 | 3.8 | 1.8 | 0.9 | 0.5 | 2,068 100.0 |
| 40~44세 | 34.2 | 48.6 | 11.8 | 2.5 | 1.6 | 0.6 | 0.7 | 2,222 100.0 |
| 45~49세 | 44.2 | 42.7 | 8.3 | 2.5 | 1.0 | 0.4 | 0.9 | 1,858 100.0 |
| 혼인 상태 | | | | | | | | |
| 미혼 | 44.5 | 31.3 | 4.1 | 2.1 | 2.6 | 4.9 | 10.5 | 2,182 100.0 |
| 기혼 | 32.5 | 48.4 | 12.0 | 3.4 | 1.9 | 0.7 | 1.0 | 7,373 100.0 |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355의 〈표 9-22〉 일부.

7.0%이다.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금액의 분포는 월 10만 원(연간 120만 원) 미만 에 치우쳐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수혜율은 낮았지만 수혜 금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 별로 보면, 19~24세와 35~39세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 비율이 각각 69.4%, 70.3%로 높게 나타났다. 19~29세는 부모에게 지원받은 적이 없거나 월 10만 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가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반면, 50만~70만 원 미만과 70만 원 이상이 각각 8.9%, 29.0%를 차지하는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35~39세는 수혜율은 높지만 수혜 금액은 월 10만 원 미만이 51.2%를 차지하여, 부모의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혼 자녀는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이 44.5%로 기혼 자녀의 32.5%보다 높았다. 즉 미혼은 기혼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는 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미혼자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기혼자보다 낮은 것은 기대 밖의 결과이다. 그러나 수혜 금액의 분포를 보면, 기혼은 월간 20만 원 미만에 치우쳐 있지만, 미혼은 50만~70만 원과 70만 원 이상도 각각 4.9%, 10.5%를 차지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는 특성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수혜 관계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미혼인 사람들

의 어떤 특성이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미혼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미혼인 사람들의 다양한 생애과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를 구분하여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관계를 살펴본다.

나. 미혼 성인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별 세대 간 자원 이전

우선, 결혼하지 않은 19~49세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와 각 상태별 부모 동거율은 <표 7>에 제시된 것과 같다. 전체 미혼인구 중에서 전일제 유급근로 중인 사람의 비율이 60.2%이고 재학 중이 27.3%, 실업 상태가 6.9%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부모 동거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일제 유급근로 중인 미혼자의 부모 동거율은 5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달리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는 모두 부모 동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 동거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취업 준비 상태로, 82.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재학 중인 미혼자는 77.8%, 구직 중인 미혼자는 70.6%, 단시간근로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는 72.9%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 통합되지 못한 경제적인 비자립 상태가 부모와의 동거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재학 중인 인구를 제외하면, 비취업자나 단시간근로자가 미혼인구

표 7. 19~49세 미혼자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단위: %, 명)

| 구분 | 경제활동 상태 분포 | | | 부모 동거율 | | | |
|----------------|------------|-------|---------|--------|------|------|------|
|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
| 재학 중 | 26.2 | 29.0 | (1,247) | 27.3 | 74.5 | 82.3 | 77.8 |
| 구직 중(실업) | 6.7 | 7.2 | (315) | 6.9 | 70.3 | 70.9 | 70.6 |
| 취업 준비 | 2.6 | 1.3 | (94) | 2.1 | 78.5 | 94.8 | 82.5 |
| 비경활 기타 | 2.7 | 2.1 | (113) | 2.5 | 69.6 | 66.3 | 68.5 |
| 단시간유급근로 및 무급근로 | 1.1 | 1.0 | (47) | 1.0 | 73.2 | 72.3 | 72.9 |
| 전일제유급근로 | 60.7 | 59.5 | (2,749) | 60.2 | 47.6 | 58.7 | 51.9 |
| 전체 | 100.0 | 100.0 | (4,046) | 100.0 | 57.8 | 67.2 | 61.5 |

주: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유급근로를 병행하더라도 재학 중인 상태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미혼인구의 높은 부모 동거율은 비취업자(와 단시간근로)와 취업자의 부모 동거율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남성 전일제 유급근로자의 부모 동거율이 47.6%인 데 반해 여성 전일제 유급근로자의 부모 동거율은 58.7%로 1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재학 중인 경우와 취업 준비 중인 경우도 여성의 부모 동거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젠더 요인이 우리나라 미혼의 높은 부모 동거율을 일부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부모 집을 떠나는 것이 결혼 이외의 주거 독립 사유라면, 그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과 지지가 여성과 남성 사이에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여성의 시각에서, 높은 부모 동거율은 부모와의 동거가 제공하는 복지와 가치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주거 자립에 필요한 자원과 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8>은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 독립' 상태의 미혼자들이 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모와 어떻게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각 셀의 응답 빈도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 금액 구분 범주는 4개로 축소하였다.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전체의 89.4%가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지원 규모는 30만~70만 원 미만이 21.2%, 70만 원 이상이 55.7%를 차지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일반적이고 지원 규모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미혼 성인은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진다. 취업 준비 중인 경우가 80.3%로 가장 높았고, 기타 비경활은 49.0%, 구직 중인 경우는 69.3%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단시간근로를 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도 부모의 지

표 8. 19~49세 미혼자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별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제공과 수혜

(단위: %)

| | 구분 | 없음 | 있음 | | | | | 전체 |
|--------------------------------|-----------|------|------|----------|--------------|--------------|----------|-------|
| | | | | 10만 원 미만 | 10만~30만 원 미만 | 30만~70만 원 미만 | 70만 원 이상 | |
|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 (자녀 → 부모) | 재학 중 | 70.7 | 29.3 | 23.9 | 3.6 | 1.9 | 0.0 | 100.0 |
| | 비경활_취업 준비 | 52.3 | 47.7 | 47.7 | 0.0 | 0.0 | 0.0 | 100.0 |
| | 비경활_기타 | 57.3 | 42.7 | 27.6 | 9.7 | 0.0 | 5.5 | 100.0 |
| | 구직 중(실업) | 45.9 | 54.1 | 27.9 | 18.1 | 7.6 | 0.6 | 100.0 |
| | 단시간/무급근로 | 46.7 | 53.3 | 33.0 | 20.2 | 0.0 | 0.0 | 100.0 |
| | 유급근로 | 16.1 | 83.9 | 38.1 | 28.6 | 13.4 | 3.7 | 100.0 |
| | 전체 | 27.9 | 72.1 | 35.1 | 23.3 | 10.7 | 2.9 | 100.0 |
| 비동거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수혜 (부모 → 자녀) | 재학 중 | 10.6 | 89.4 | 7.8 | 4.7 | 21.2 | 55.7 | 100.0 |
| | 비경활_취업 준비 | 19.7 | 80.3 | 22.1 | 7.6 | 31.9 | 18.7 | 100.0 |
| | 비경활_기타 | 51.0 | 49.0 | 18.5 | 13.3 | 15.9 | 1.3 | 100.0 |
| | 구직 중(실업) | 30.7 | 69.3 | 27.7 | 20.7 | 9.1 | 11.9 | 100.0 |
| | 단시간/무급근로 | 26.9 | 73.1 | 7.2 | 0.0 | 45.5 | 20.5 | 100.0 |
| | 유급근로 | 52.4 | 47.6 | 38.7 | 5.7 | 2.7 | 0.6 | 100.0 |
| | 전체 | 43.9 | 56.1 | 32.3 | 6.4 | 6.9 | 10.5 | 10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원을 받는 비율이 73.1%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현재 전일제로 일하는 미혼자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47.6%에 불과했는데, 이는 기혼자의 지원 수혜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원 규모도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8.7%를 차지하여, 월 1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유급 종사자 미혼의 비율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일제 미혼자는 83.9%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규모로 지원한 경우가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미혼 성인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부모와의 경제적 이전 관계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거나 미취업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떨어져 사는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미혼 성인 남녀는 부모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으며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적어도 일상적인 생활 면에서 전일제 유급근로 중인 부모 비동거 미혼자는 대부분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19~49세 성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그러한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비혼인구는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어 부모 집을 떠나는 계기와 시점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대학 진학을 위한 경우, 20대 초중반에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따라 이주한 경우, 그리고 20대에서 30대까지 넓게 퍼져 있는 초혼 시점에 부모 집을 떠나는 경우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후의 주거 독립 연령이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넓게 퍼져 있는 것은, 성인 자녀가 부모 집을 떠나는 것이 특정한 연령을 중심으로 규범화되어 있지 않고, 노동시장 이행과 결혼이라는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진학이나 취업이 거주지역 변화와 지역 간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미혼의 경우 개인 생애에서 부모 집을 떠날 계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집합적으로 비혼인구의 부모 동거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비혼인구가 적어도 주거 면에서 자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이가 부모와의 동거는 경제적인 의존이나 생활상의 통제가 지속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비혼의 의미가 가족 생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여성일수록,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미취업 상태일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하위 집단의 특성은 부모 집을 떠나 주거 독립을 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승인과 경제적 자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취약계층에서는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취약 집단과의 대비 집단으로서 남성이며, 대학 이상의 학력이고, 취업 중인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은 제약 조건이 없다면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이라는 선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동거 형태와 함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주거 자립' 성인들이 부모와 어떤 경제적 관계에 있는가도 파악하였다. 예상할 수 있듯이 미취업 상태의 학생, 취업 준비자, 구직자 등은 비동거 부모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일제로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았고, 월 10만 원 이하의 소액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전일제 취업자는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혼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부모 집을 떠나 취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미혼자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에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혼과 성인 됨에 대한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결혼의 지연은 곧 자립의 지연, 부모의 보호와 통

제의 지속 등과 동일시될 수 있다. 비혼인구의 높은 부모 동거율은 한편으로 이러한 시각을 지지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비혼인구의 연령, 성, 계층, 경제활동 상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부모 동거율과 부모 비동거자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여전히 개인들의 선호가 부모·자녀의 의존적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의 동거가 지속되고 비동거 부모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질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문제 차원에서 더욱 심화된 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Schedule: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Family Change. *Future of Children*, 20(1), 67-87.

참고문헌

- 마이클 로젠버그. (2014). 자립기: 1960년대 이후 자립생활기의 형성과 가족 및 사회의 극적 변화 (이계순 옮김). 서울: 갈무리.
-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illari, F. C., & Liefbroer, A.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3), 59-75.
- Furstenberg, F. F. (2010). On a New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Economic Resources: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Unmarried Adults

Sunyoung Cho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paper examined the proportion of adults under 50 (19–49 years old)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the economic transfers unmarried adults provide to, and receive from their non-coresiding parents. Of the surveyed, 30.1% lived with their parents; 64.1% of unmarried people lived with their parents. Having examined whether, when and why people choose to become housing-independent, this study finds that leaving the parents' home for a home of their own is not an age-specific normative requirement, but a selection dependent on three life events: marriage,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rate of coresidence with parents was lower in men and in those with educational attainment of a four-year college degree or higher, and in those in full-time employment. Access to economic resources and sociocultural support are related to unmarried adults'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non-coresiding parents, the respondents were more often transfer providers than they were receivers, and unmarried adults in full-time employment provided financial resources to their parents just like married adults did to theirs.